법공양 페이지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부처와 본래 한자리" 믿고 들어가라

"苦는 업보이전에 '나' 성숙시키는 기회"
"자기 발견 못하면 바람따라 휩쓸려요"

☞ 17면에서 계속

말입니다. 그래서 '빌 공'(空)자 주인공이다 이거지요.

물론 사람마다 이름이 있어서 '아무개야' 하고 구별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건 다 똑같이 부르면 안되겠기에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자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기 이전이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름이 있기 이전이 바로 자기의 참불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처님은 볼수 없습니까

문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법계에 꽉 차고 두루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처님 몸은 볼 수도

사대가 뭉쳐 모습 만들고
구르고 굴러 진화 했으니
차원바꾸는 원력 누구에게나…

없고 만질 수도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달나라에도, 저 별자리 속에도 계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양 윤유훈〉

답 부처님께서 앉은 자리는 그냥 한 도량이지요. 부처님 발은 평발이구요.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고 하겠지만 첫째로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면 전체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만물이, 일체도 이름이지만 아무튼 두두물물이 다 공체요 공심이요 둘이 아니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자리요 한도량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거론할 수 있는 모든 것, 닥치는 모든 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달나라든 별나라든 말입니다.

그렇다고 끌어다가 보는 것도 아니고 끌어다가 한자리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서 보고 가서 듣는 것도 아니지요.

공처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 여기든 거기든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그냥 한자리 한도량인 것이지요. 그러니 꽉 찼다는 것도 말이지만 꽉 찼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모양이 있어서 본다, 만진다, 듣는다 하는게 아니라 둘이 아니게 내 속에서는 내가 되고 저 속에서는 저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있는 모습도 될 수 있고 없는 모습도 될 수 있고요.

그걸 사람들이 자꾸 둘로 보려고 하니까 두루 찼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원리가 있다면 이 부처라는 이름 자체도 없는 원리가 있다고 할까요. 그 원리 안에는 아무 것도 붙질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문 경전에서는 일체가 지·수·화·풍 사대에서 생겼다고 했습니다. 〈능엄경〉에 보면 참마음(眞性) 속에 본래부터 지·수·화·풍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당초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경북 문경 양휘중〉

답 본래부터 허공에 두루 차 있는 한 마음으로부터 지·수·화·풍 사대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진성이라고 하든 법성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지간에 사대가 생기기 이전 그 자리에서 사대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걸 말로 할 수 없지요. 아무튼 눈에 보이기 이전에 지·수·화·풍 사대가 있었고 사대가 뭉치다 보니까 마음이 생겼고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애당초에 사대가 뭉쳐 사람이 된게 아닙니다. 사대가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그냥 합치다 보니까 생명이 생겼지만 모습은 아무렇게나, 그거 생명이라고 부를 정도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모습을 끌고 다니면서 부딪치다 보니까 점차로 새로운 모습을 개발하게 된 것이지요. 스스로 말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꾸미고 고치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없어서 불편하다 싶으면 하나를 더 붙이고 혹은 떼어내면서 구르고 굴러서 진화해 온 것이지요.

그러니 인간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쳤겠습니까? 참으로 그 과정을 알면 피 눈물이 나지요.

구르고 굴러서 인간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냐? 아니지요. 또 구르고 굴러서 부처가 안 될 리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 나무 한 그루, 벌레 한마리, 또는 물 한방울 바람 한점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전부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쉬지 않고 굴러 왔고 쉬지 않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괜한 말이 아니지요.

인간이 되었건 미물이 되었건 자동적으로 구르고 굴러서 모습을 바꾸고 차원을 바꿀 수 있는 원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원력이 다 어디서 오느냐? 지·수·화·풍 사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부처님 자리이지요.

사실은 전체가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꽉 차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적든 크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마음내면 일어나는 거고 마음 안내면 안 일어나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가 아니드냐? 내놓는다 들인다 해도 늘고 줆이 없지 않느냐? 어느 것이든 나 아님이 없지 않느냐? 천백억화신으로 나툴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요 한 발이라고 하고 수효로 말하면 항하수 모래알보다 더 많다 하고, 크기로 말하면 한없이 크고 작기로 말하면 너무 작아서 모래 알갱이 속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하지요.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법이고 유위 무위가 둘 아닌 법이며 하나도 법 아닌게 없고 말 한마디에 우주법계가 들썩거리고 손가락 하나로 하늘을 받친다고 하는 겁니다.

'선'과 '교'는 하나인지요

문 법주사 팔상전 앞에 등을 떠받들고 있는 돌사자가 있습니다. 한마리는 입을 벌리고 있고 또 한마리는 다물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 말씀이 벌린 것은 염불, 다문 것은 선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 즉 설법과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교'와 '선'을 겸비하셨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 가르침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충남 공주 이진철〉

답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선과 교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항상 둘이 아니게 따르고 있지요. 말없이 있어도 선과 교가 항상 같이하고 말을 해서 가르친다 해도 언제나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 그대로 회전이 되지요.

부처님의 그 말씀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선에서 나왔고 선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입을 다물면 드는 것이고 말을 했다 하면 나는 것인데 무위법 유위법이 다 선의 작용이요, 그대로 자비인 것이지요.

'교'라 해서 '선'과 떼어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군데서 나오고 한군데로 드는 것이니 그대로 선이고 그대로 교이고 그렇지 선과 교가 따로 있던가요.

예로부터 말해 놓기를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계는 부처님의 행이요, 경과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자동적으로 한구멍에서 나오고 한구멍으로 드는 것이 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그대로 선이고 계이고 교이지요. 삼합이란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무조건 믿기 어렵습니다

문 스님께서는 말씀 중에 자주 '무조건 믿고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무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은 '아하, 그렇겠구나' 하는 최소한의 공감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실천이 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가르침 바랍니다. 〈서울 성북동 이정환〉

답 알로 낳고 태로 낳고…, 태로 낳는 중에도 인간의 고습을 가지고 나왔으면 벌써 부처라, 이건 가차없는 부처인데 자기를 믿지 못한다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 행하는 것 하나하나, 끝간데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생각까지…, 그걸 다 말했다고 할 수 없고 다 행했다고 할 수 없고 다 생각해냈다고 할 수 없고, 많다고도 적다고도 할 수 없지 않나요? 그게 다 한 불성,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의 나만 알지요. 그런데 믿고 들어가야지 안 믿고 들어 간다면 자기가 1백% 알 수 있는 부처이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본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가라, 무조건 믿고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라는 뜻은 뭐냐? 머리로 납득이 덜 가더라도 그냥 떡 목판에 엎어지듯이 믿고 들어가면 그 진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젊든지 늙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중이든지 아니든지 자기 속의 자기인데 못할 게 뭐냐? 부처님 자리와 본래 한자리 하고 있으며 그게 남의 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인데 왜 못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보고 듣고 한다지만 내가 부처이기에 부처노릇 하지 말래도 그냥 부처 노릇하게 되어 있으니 여러말 말고 그냥 믿고 들어가라, 그러면 물리가 터진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해주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예, 무조건 하고 죽어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살아 나오는 도리가 있고 살아나오니까 산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더라는 원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믿으란다고 밖으로 믿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안으로 제 부처를 믿으라는 말이지요.

가령 경전을 보는 일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구절 구절들도 항상 내면으로 귀결지어야 합니다. 첫째도 나로부터, 둘째도 나로부터, 셋째도 나로부터 입니다.

닥치는 경계 내 업보인가요

문 우리들에게 닥치는 경계가 실은 다 내게서 온 것이니 내 탓이지 누구를 탓할 게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다 내 업보요 내 인과로 돌리고 살라는 뜻이 되는가요?

그게 진리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충북 청주 권희영〉

답 그렇게 규정지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래 나온 곳이 없기에 갈 곳도 없는, 무한의 불성이 밝은 그 자리에 있으니 인과다 업보다 딱 규정지을게 없습니다. 그냥 불성의 내가 있기에 내가 나를 형성시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지 무슨 인과가 어때서 이렇게 태어났다 할 게 없다는 말이지요.

가령 우리가 법당을 짓고 그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있기에 법당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내 집이다, 내 법당이다 할 수 없지요.

'나'라는 이 집도 수십억 생명이 들락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어놓았지만 이게 내 집이다 하고 고정되게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업보라는 말이 붙을 수 없지요.

수십억 생명이 들락거리며 사는 데 어떻게 내 업보다, 나만의 팔자운명이 있다라고 딱 잘라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순이 아닐까요?

이 마음도리를 모르는 사람에겐 업보라, 인과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모양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업보가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한다면 그게 바른 말이지요.

업보가 아니라 나를 성장케하는 과정이요 공부의 재료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야말로 나무가 잘 자라게 물을 주고 김을 매주는 일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물도 안주고 김도 매주지 않고 그냥 돌 밭에서 자라 봐라, 네 업보니까 견뎌 보아라 한다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고(苦)가 되고 말지요. 팔자운명을 탓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걸 고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참 나가 나를 형성시켜 놓고 내게 수행의 과정을 따르도록 하는구나' '참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나를 가르치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야말로 나무에게 물을 주고 잘 자라라고 김을 매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 죄다, 업이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죄어들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계발하게 그렇게 해야 옳다 이겁니다.

지금 그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기에다 덧붙여서 '당신은 업보가 많으니 그걸 없앨려면 치성을 드리시오. 부적을 하시오'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네 업보다 그런다면 그렇게 듣는 사람에겐 분명히 업보가 있는게 됩니다.

그 듣는 사람이 '아이구 내 팔자야. 업이 많아서 이렇구나' 한다면 거기에 매였으니 있는 거지요.

반면에 '이 고통마저도 그대로 성숙케 하는 과정이다. 감사하게 생각해라' 하고 뚜껑을 따 준다면 꽉 막혔던 생각이 활짝 열려서 얽매이지 않을 것이고 얽매이지 않으면 활달하게, 자유롭게 자기가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나아갈 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집에 대해 얘기했지만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도 살다가 헐어지면 제 손으로 고쳐서 살고, 살다가 비좁다 싶으면 집을 좀 늘려지어서 삽니다.

그런데 이건 업보니까…, 한다면 거기에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한 푼 어치의 이익도 없겠지요.

그래서 모든게 고맙고 감사한 법입니다. 인간으로 형성시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고맙고 서로 서로 오고 가는 행이 또 고맙고…, 그런데 그걸 업보다, 고다 한다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요. 왜냐? 부처를 이루게 인도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수만 겁을 돌고 돌게 만드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 드리지만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돌려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스님네들도 괴롭지 않고 신도들도 괴롭지 않게 말이예요.

삶의 의미를 일러주세요

문 스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삶의 의미, 생사의 의미에 대해 무어라고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제 막 불자가 된 사람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쭙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 남춘복〉

답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거론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런거지' 하고 말겁니다. 그러나 저 벌레 하나를 보더라도 껍데기를 벗고 또 벗고 하면서 새롭게 변모하는 것이 참으로 눈물겹기도 하고 거기에 광대무변한 뜻이 있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껍데기를 벗는다고 아주 죽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진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것이나 뭍에서 사는 것이나 모두, 생명들이라고 하면 살면서 그래도 뭔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따라 진화하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가운데 거기서 뛰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식으로 거기서 뛰어나오지 못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공부를 해라, 어떻게 해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려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그뿐이지 뭐가 있어서 돌고 도느냐 하고, 어떤 이는 그러기에 먹고 마시고 한 세상 즐겁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자유자재권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해도 뭣이 다르겠으며 이날까지 애쓰면서 진화해온 보람이 뭣이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벽도 없고 보꾹도 없고 멀고 가까운 것도 없습니다.

고로 한 찰나에, 빛보다 빠르게 모두를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둘 아니게 응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마음도리를 잘 알아서 이날까지 살아온 보람도 살리고 자유권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도 건져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공부 하는데는 말로 꼭 집어서 해드릴 수가 없군요. 참으로 끝간데 없는 묘법이라는 것을 알려 드릴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말이 '허, 참 이건까 보일 수도 없고 어쩌면 좋나'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풀 한 포기를 보아도 범상하게 볼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이치를 느끼시라 이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모양으로야 사람이고 나무고 풀이고 그렇지만 마음으로야 어찌 벽이 있다 보꾹이 있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사는데 급급해서 그렇지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는 것은 우리와 같고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통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에 무슨 신묘한 구석이 있는가 보다 하시면 안됩니다.

일체 만물 만생이 태어나는 근본은 '불'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치가 바로 '교'이니 그 속에 불법이 있고 불법속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그대로 여여하니라 하게 되지요.

꿈에 구렁이를 봤습니다

문 스님, 꿈에 큰 구렁이가 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태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구렁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천 강정원〉

답 태몽에 돼지를 봤다, 용을 봤다 그러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그대로이니까요.

나는 좋다 나쁘다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렁이를 보았다 하면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평상시에 자고 먹고 생활하는 그 용(用)을 말하는 것이지 뭐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어머님의 생각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그 아이는 그대로 따르게 되는데 구렁이를 보면 시큰둥하고 용을 보면 큰 인물이 날 거라고 좋아하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구렁이를 보았으니 아주 활력적인 생활을 하던 영혼인 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소를 보았다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영혼으로 생각하면 될 거구요.

영혼엔 아주 슬픈 영혼, 즐거운 영혼, 아픈 영혼, 한이 많은 영혼…,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지만 나의 영원한 근본을 믿으면서 알고 보면 서로가 똑같은 지경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이끄는게 우선이지 꿈에 보는 모습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협찬 민병순 · 윤후동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4동 204-142